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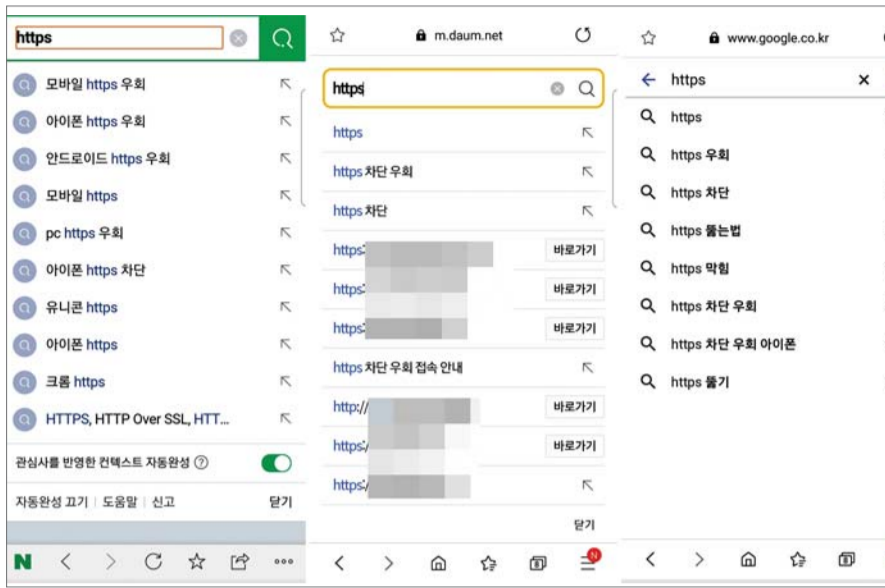
정부 'https 차단 규제' 비롯듯 우회로 정보공유 활개

포털에 일목요연한 우회로 '수두룩' 간단하고 쉬워 속수무책으로 뚫려 전용 '브라우저 어플' 인기 급상승 "더 유해한사이트 접속 초래할 수도"

정부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작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차단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작했다. 시행 첫날 불법 도박 사이트 776곳과 음란 사이트 96곳의 접속이 막혔고 이달 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https 차단 방식으로 6000개가 넘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하지만 https 차단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단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에 쏠렸다. 포털에서 검색창에 https까지만 쳐도 연관검색어로 '모바일 https 우회', '아이폰 https 우회', '안드로이드 https 우회' 등 우회에 대한 검색어가 나열된다. 쉽고 간단하게



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https를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 /구서윤 기자

차단을 피할 수 있어 정부의 대책에도 불법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포털사이트에 우회 방법을 검색하면 PC와 모바일에서 https 차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다수 나온다. 한 게시글을 보고 따라 해 봤다. 기존에는 익스플로러와 크롬 등에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에 안내가

나타나며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정을 조절한 뒤에 다시 같은 주소를 입력하자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해졌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 자동 가상사설망(VPN) 기능이 있는 브라우저를 다운 받으니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에서도 비슷하다. 간단히 앱을 하나를 내려받아 https 차단을 피할 수

있다. 그중 한 브라우저 앱은 처음 접속해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30초의 광고를 봐야만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무료앱이어서 인기가 높다. 불법 사이트 접속 목적이 아닌 단순 검색용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https 차단이 시작된 2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급상승한 앱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차단이 시작된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에만 약 850명의 사용자가 리뷰를 남겼다. 작년 1년 동안 169개의 리뷰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관심이다. 현재는 인기 앱/게임 순위 4위다. 광고 등이 없어 편리한 유료(6000원) 버전은 인기 유료 앱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로에 대한 우려는 이미 htps 차단 초기에 나왔다. 지난 2월 11일,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이유로 현재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에는 약 27만명이 동의했다.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청원이 시작된 지 열흘 만인 2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

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간 논의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등의)피해자를 방지할 수 없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안전문가는 "정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https 차단을 하고 있지만, 사이트 접속이 막힌 사용자가 초반에는 '막혀서 못 들어가겠구나' 생각하더라도 결국 우회 방법을 찾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며 "이런 방법이 퍼지다 보면 여러 기술과 생소한 브라우저를 알게 돼 기존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위험한 사이트까지 들어가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IT 전문가도 "정부가 아무리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도 들어갈 방법은 반드시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옳지만 차단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SKT, 인크로스 품고 디지털광고 '시너지' 봄 이사철인데... 아파트 입주경기 '흐림'

지분 34.6% 535억에 인수 '최대주주' 강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을 인수하며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기존 NHN이 보유하고 있던 인크로스 지분 34.6%를 주당 1만 9200원, 총 약 535억원에 인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인크로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빠르게 변화·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고, 자사의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시켜 미디어·커머스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크로스는 국내 최초로 동영상매체를 묶어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애드 네트워크 '다윈'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인크로스의 디지털 미디어랩 경쟁력에 자사 및 관계사가 보유한 머신러닝 역량과 타겟팅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이 보유한 티맵, T 전화 등 매체를 활용해 인크로스를 디지털 광고·마케팅 영역의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전국 HOSI, 두달째 60선 기록 부산 47.6... 조사 이래 최저치

4월에도 전국에서 '미입주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와 신규 입주물량이 누적된 부산에서 미입주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68.0으로, 2개월 연속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의 4월 HOSI 전망치는 85.4로 두 달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이어 대구(84.6), 광주(80.0), 세종(80.0)도 80선을 기록했다. 대전(77.7)과 제주(73.3)가 70선을 나타냈고 강원(64.2)은 7개월 만에, 전북(62.5)은 한 달 만에 60선으로 올랐다.

그러나 부산의 전망치는 47.6으로 전월 대비 19.0포인트 추락했다. 지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망치 40선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2019.04 입주경기실사지수전망>

구분	입주경기 실사지수 전망	변동(P) (전월대비)
수도권	72.6	4.5
서울	85.4	12.7
지방	67.1	5.5
부산	47.6	▲19.0
대구	84.6	11.1
광주	80.0	23.4
대전	77.7	7.4
울산	53.3	▲5.7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침체와 신규 입주물량 누적, 기존 주택매각 지연 등의 영향이라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3월 전국 HOSI 실적치는 67.4로 전월(61.4) 대비 6.0포인트, 전망치(62.7) 대비 4.7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60선을 유지하고 있어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하는 모양새다.

제주가 80.0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78.5)과 서울(77.0), 강원(76.9), 전남(76.9), 대전(76.4), 광주(75.0), 전북(75.0), 대구(73.0)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6.3으로 전월 대비 17.0포인트 떨어져 조사 이래 첫 30선을 기록했다.

3월 입주율은 75.9%로 나타났다. 봄 이사철이 시작된 만큼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85.2%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올랐고, 지방도 73.9%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3.5%)', '세입자 미확보(30.4%)', '잔금대출 미확보(11.6%)' 등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영남·경기권에 입주물량이 몰린다.

이달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54개 단지 총 2만7585가구다. 민간이 2만2919가구(86.7%), 공공이 3666가구(13.3%)다.

지역별로 수도권 23개 단지 1만1366가구, 지방은 31개 단지 1만612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3월엔 경기도와 영남권 내 대규모 입주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입주여건 악화가 전망된다"라며 "경기도에 3월 입주예정물량의 38.1%(1만5620가구), 영남권에 33.6%(1만3778가구)가 집중될 예정이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최신화 기자 csh9101@

접근성 내세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활기'

안양·성남·인천 등서 공급 잇따라

수도권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잇따라 공급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두산 명학 아너비스타워(두산중공업)', 성남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 고등(현대건설)', 인천 '송도 AT센터(포스코건설)', 서울 '구로 SK V1 센터(SK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줄을 잇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물 내에 생산 시설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대체, 새로운 업무 환경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동 활용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간 기술교류, 부대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신청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신설 또는 변경승인(최초승인일 기준)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053곳, 특히 1분기에는 32건의 신규 승인이 이뤄지며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 2분기와 3분기(각 30건)를 넘어섰다.

두산중공업은 경기도 안양에 '두산 명학 아너비스타워'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지식산업센터,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직주결합형 업무복합시설로 조성된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송도 AT센터'도 이달 분양한다. 1층 외에는 3.6~5.2m로 층고를 달리하고 드라이브인 설계를 적용한다. 인근에서는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 센터가 이미 공급을 마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전북·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올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사업자로 전라북도과 경상남도가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지역별로 총 280억원 투입해 지역·민간 주도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난 10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8명 위원 전원의 지원적격 승인 판정을 받았다.

입주기업 수요분석, 타당성조사 등을 자체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으며 입적자인 군산·창원이 현재 산업 위

기지역이란 점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는 설계비와 부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은 산업부 및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우 기자 grandtrust@